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178호 (2013-08) 발행일 : 2013. 02. 22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복지부문 수요 증가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연평균 임금수준은 기관의 영세성과 서비스 수가의 동결 등으로 인해 일반 임금근로자 대비 약 28% 수준으로 파악

단기적으로 서비스 수가의 현실화와 임금체계의 구축을,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과 수요확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상품개발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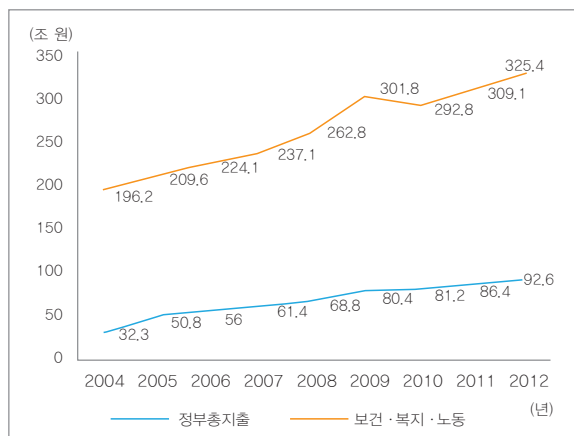


이철선 연구위원

1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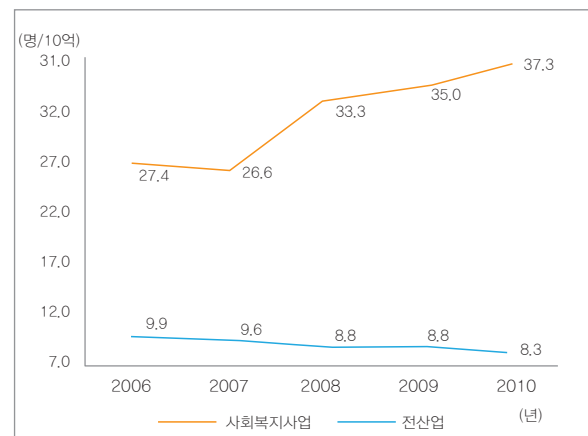
- 복지부문에 대한 국민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산업으로써 사회서비스산업이 부각
 - 2004년 전체 국가예산 중 16.5%였던 보건·복지·고용 등 복지부문 예산이 2012년에 28.4%까지 상승
 - 우리나라의 고용을 책임졌던 제조업 등 전체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감소하고, 사회서비스산업이 새로운 고용창출산업으로 부각

[그림 1] 복지부문 국가예산추이(2004~2012년)



자료: 국회예산처(2004~201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재정

[그림 2] 고용유발계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2006~2010), 산업연관분석 고용표

주: 고용유발계수란, 매출 10억 원 증가 시, 산업별 고용유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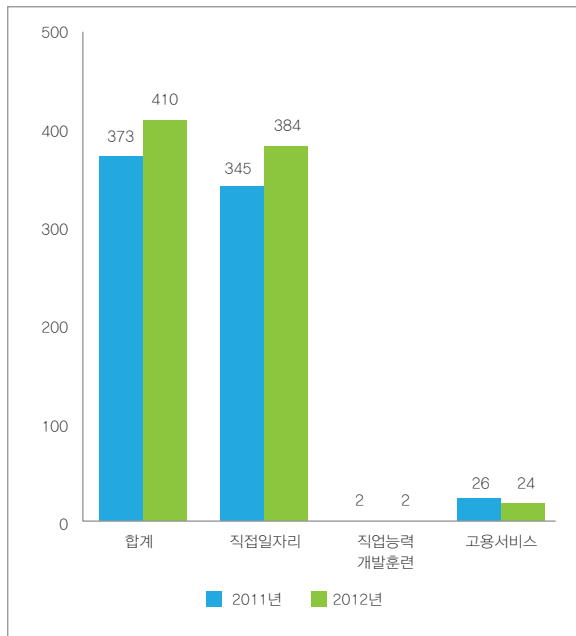
- 정부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해 왔지만,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등 처우가 낮아 장기적인 제고방안이 요청되는 시점임

○ 2012년 기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량은 총 56만 4천명이며, 이중 복지부문 직접 일자리는 전체의 68.1%에 해당하는 38.4만 명으로 총 1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노인재가장기요양보험의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낮은 임금 등에 대하여 관련부처에게 개선을 권고함

○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특징을 산업과 기관, 종사자 차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향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그림 3] 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유형별 현황 (2011~2012년) (단위: 천명) <표 1> 보건복지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현황(2011~2012년) (단위: 명, 억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구분	2011년		2012년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소계	10,565	344,664	13,109	384,351
① 장애인 활동지원	1,152	24,000	3,099	35,000
② 노인일자리(광특포함)	1,486	200,000	1,672	220,459
③ 자활사업(자활근로)	3,763	61,000	3,969	66,000
④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45	2,145	283	2,543
⑤ 장애인 일자리 지원	273	10,300	311	10,800
⑥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58	696	69	832
⑦ 보건소방문보건사업	316	2,750	323	2,750
⑧ 아동복지교사 지원	221	2,700	227	2,700
⑨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43	1,680	143	1,680
⑩ 장애아동가족지원	481	3,700	567	3,700
⑪ 아동안전지킴이	72	2,270	72	2,270
⑫ 노인돌봄서비스	1,002	13,573	1,027	16,224
⑬ 지역사회서비스	1,353	19,850	1,345	19,353
⑭ 민간복지자원지원	-	-	2	40

자료: 보건복지부(2012)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성

가. 산업: 필수재 성향이 강한 수요로 인해 직접고용이 많지만, 노동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의 일자리로 파악

- (수요) 정부가 국민들의 유효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며, 직접고용유발이 높음

○ 사회서비스산업('05~'07)의 취업자 증가율은 생산성요인보다 총수요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나, 최종수요가 소득증가 및 가격상승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 정부주도의 필수재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파악¹⁾

1) 사회서비스산업은 소득상승에 따른 최종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소득탄력성(0.67)이 유통(0.73), 생산(1.38), 개인(1.08) 등 타 서비스업종보다 낮으며, 가격상승에 따른 최종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가격탄력성(-0.26)도 비탄력적인 것으로 파악: 황수경외(2009), 고용구조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창출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한편, 총 고용유발인원 중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간접유발률은 타 산업 대비 가장 낮은 20% 이하 수준이며 고졸 및 중졸, 그리고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는 산업임

〈표 2〉 서비스 업종별 고용 변동의 분해(2005~2007년) (단위: %)

구분	취업자 증가율	총수요 요인	생산성 요인
전체서비스업	4.7	6.1	1.3
유통서비스업	3.0	5.4	2.3
생산자서비스업	8.3	7.1	-1.1
사회서비스업	5.8	6.0	0.2
개인서비스업	3.1	5.3	2.2

자료: 황수경외(2009), 고용구조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표 3〉 산업별 직·간접 취업유발효과(2007년) (단위: 명/10억 원, %)

구분	총 유발인원 (A)	직접 유발인원 (B)	간접 유발인원 (C=A-B)	간접 유발률 (C/B)	
전산업	13.9	8.2	5.7	69.5	
제조업	9.2	3.0	6.2	206.7	
서비스업	18.1	12.8	5.3	41.4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등	14.5	9.5	5.0	52.6
	교육서비스	23.6	20.4	3.2	15.7
	의료보건	16.7	10.6	6.1	57.5
	사회복지사업	32.7	27.3	5.4	19.8

자료: 한국은행(2009),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주: 간접취업유발률=(간접유발인원/직접유발인원)*100

■ (노동생산성) 노동의 부가가치생산성과 미세숙련도가 서비스 업종 평균 대비 낮음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이 최근 들어 감소 추세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재정 일자리사업의 예산동결로 인해 종사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노동생산성의 질적 요소인 숙련도의 경우, 사회복지업은 인지적(지식생성), 육체적(작업강도), 상호적(상호작용) 숙련도는 서비스업 평균보다 약간 높으나 미세(자격증) 숙련도는 낮은 수준임

〈표 4〉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 (2008=10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서비스업 전체	99	103	103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등	108	106	107
도소매업	98	108	115
운수업	91	102	104
숙박·음식점업	108	112	104
출판·영상·방송·정보서비스업	99	101	102
금융·보험업	93	94	96
부동산·임대업	95	98	11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2	89	8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	99	99	102
교육 서비스업	92	93	9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00	98	98
예술·스포츠·여가	93	103	90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98	99	98

자료: 한국생산성본부(2012), 부가가치노동생산성 지수
주: 1)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액/종업원 수
2) 2008년(100)을 기준으로 산출

〈표 5〉 서비스 업종별 숙련점수(2006년) (단위: 점)

인지적 숙련	육체적 숙련	미세 숙련	상호적 숙련
연구개발(75.0)	수리업(43.9)	육상운송(67.7)	교육(66.9)
정보처리(72.3)	육상운송(36.0)	보건업(58.0)	가사(46.7)
.	.	.	사회복지(42.7)
.	.	.	.
사회복지(44.7)	사회복지(25.8)	평균(27.6)	평균(36.9)
.	평균(25.7)	사회복지(25.8)	.
평균(43.1)	.	.	.
.	.	.	.
.	.	.	.
육상운송(27.0)	기타금융(11.2)	금융업(8.6)	기타금융(29.5)
가사(26.6)	보험연금(10.8)	보험연금(7.7)	보험연금(2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2006년 원자료, 황수경외 (2009), 고용구조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재인용
주: 30개 서비스업종의 숙련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나. 기관: 규모가 작고, 직·간접인건비 비율이 높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능력이 낮음

■ (규모) 고용창출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이루어지지만 현 종사기관들은 대부분 소규모 수준임

○ 돌봄 바우처 사업기관 중 서비스 유형별 100인 이상 사업체는 각각 1.7~13.5%임

○ 사회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순증가율은 300인 이상일 때 급상승하며, 특히 사회복지부분은 100인 이상일 때 급상승

〈표 6〉 돌봄 바우처 기관의 돌봄 도우미 현황(2012년) (단위: %, 명) 〈표 7〉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창출 순 증가율(2005~2006년) (단위: %)

사업체 규모	노인 돌봄	가사 간병	산모 신생아	장애인 활동	아이 돌봄
전체	339	162	51	332	121
1~9	25.4	11.7	21.6	9.3	9.1
10~29	51.1	46.9	43.1	29.9	32.2
30~99	21.8	39.0	27.5	47.2	50.4
100인 이상	1.7	2.4	7.8	13.5	8.2
평균(인)	25.8	36.5	30.3	56.0	51.9

자료: 보건복지부(2012),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사업체 규모	생산자 서비스	유통 서비스	개인 서비스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기타
1~9	-1.2	-0.2	-3.2	-0.6	6.5
10~29	-0.5	0.0	-0.6	0.2	2.8
30~99	0.9	0.2	-2.5	1.5	-1.0
100~299	4.0	-3.9	-2.1	0.5	15.4
300~499	7.8	-4.0	5.5	4.1	-
500인 이상	14.6	-11.0	-0.6	5.9	-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속사업체 자료, 황수경 외(2009), 고용구조 선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주: 사회복지업은 300인 이상 자료가 부재.

■ (손익구조) 정부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직·간접인건비 비율이 높아 처우개선 여력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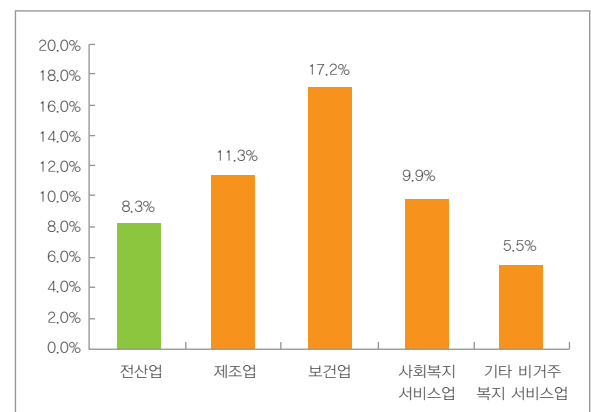
○ 돌봄 바우처 사업의 경우, 기관은 서비스 수가의 25%를 수입으로 계상하나, 종사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을 고려할 때 약 87.7% 정도를 제조원가의 직·간접 인건비로 지출

○ 이의 관리자 및 기관장 인건비와 배상보험료, 기타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할 때, 돌봄바우처 종사기관이 속한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기관들의 영업이익률은 약 5.5%로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

〈표 8〉 돌봄바우처사업 서비스 수가 배분모형 (단위: 원) [그림 4] 산업별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정 (단위: %)

사업구분	시간당 서비스 수가 (100.0%)	직간접인건비(87.7%)			운영비 (12.3%)
		종사자 직업 인건비 (75.0%)	간접인건비(12.7%)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6.5%)	퇴직 적립금 (6.3%)	
가사간병	9,200	6,900	593	575	1,132
노인돌봄	9,200	6,900	593	575	1,132
산모 신생아	7,295	5,471	471	456	897
장애인 활동	8,328	6,246	537	521	1,024

자료: 보건복지부(2012), 각 돌봄 바우처 서비스 사업지침
주: 종사자 직접 인건비를 기준으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은 9%, 퇴직적립금은 8.3%로 산정 후 시간당 서비스수가를 기준으로 재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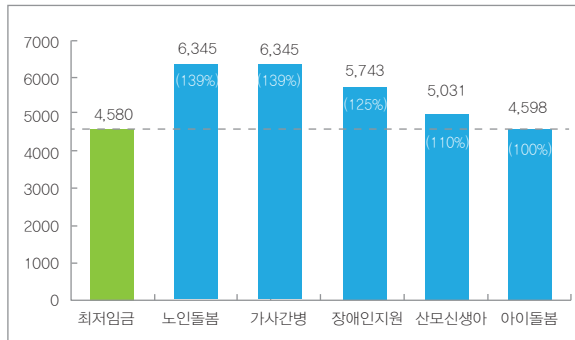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주: 돌봄바우처 사업기관의 경우 대부분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에 소속

다. 종사자: 정부의 서비스 수가 동결과 기관의 시급제 임금체계로 인해 처우가 악화

■ (처우) 임금과 직결되는 서비스 수가의 3년간 동결로 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최저임금 대비 100~139% 수준('12)이고, 시급제의 임금체계로 인해 소득기회가 상실되는 상황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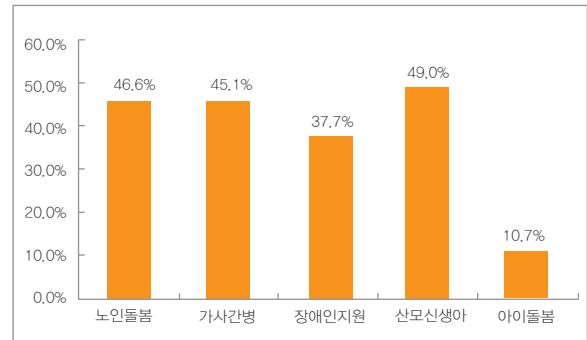
- 2007년 시작된 노인, 가사간병, 산모도우미,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서비스 수가가 동결되면서 3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고려 시, 실질소득이 약 20% 정도 감소한 상황
- 종사자들 중 고정급 형태의 기본급을 받는 종사자들은 서비스 유형별로 각각 10.7~49.0%이며, 이외 종사자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어 이용자가 갑작스런 서비스취소 시 소득기회를 상실

[그림 5] 최저임금 대비 돌봄종사자들의 시간당 임금 비교(2012년)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2).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주: 최저임금 2012년 기준. 종사자 임금은 서비스 수가의 75%기준 4대 보험 본인부담금(8.05%) 제외금액

[그림 6] 기본급을 부여하는 돌봄 종사기관 비율(2012년)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12).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

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진국 사례분석

- (분석방향) 사회서비스 산업이 발전된 해외 4개국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례를 산업수요와 노동생산성 2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 크게 4가지로 유형화가 가능
 - 종사자 임금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성은 상품수요에 의한 생산량을 결정하는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과 자본은 이자율에 따라 중요도가 가변적임
 - 사회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기관의 투입요소가 자본보다는 인적 중심의 노동이 대부분이므로, 임금상승을 위해서는 상품수요 증가와 기관의 노동생산성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산업수요의 경우, 기존 공공시장 유지 또는 대상자 확대 및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신규 개발, 노동생산성 강화차원에서는 종사자 역할 확대와 기관의 다양화를 고려할 수 있음

[그림 7]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적 제고 사례 분석 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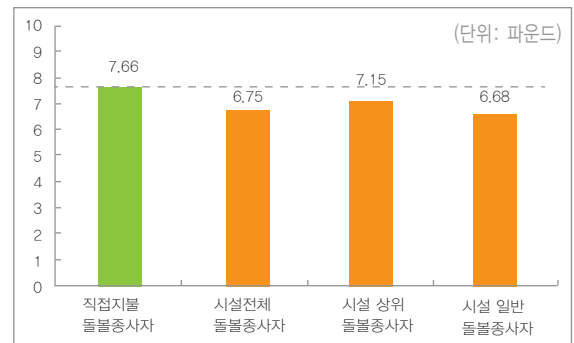
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종사자의 역할 확대는 기존 방문 돌봄 업무 외에 영입, 외출보조(운전) 등 업무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관의 다양화는 기존 돌봄기관에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포함시키거나, 기존 돌봄기관 중에서 경쟁력이 우수한 기관만을 선별해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영국: 종사자 역할 확대형) 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고용계약을 맺는 직접지불제도('96)를 실시
 - 사회적 돌봄 시장에서 기존의 종사기관을 통한 서비스 외에 서비스 이용자와 개인 종사자가 직접 계약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종사자들이 기관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실질 임금을 상승시킴
 - 직접 지불종사자 시급은 시설종사자 임금('11) 대비 7.1~14.6% 높은 7.66파운드('01) 수준으로, 이는 이용자와 서비스 종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종사기관들의 수수료 몫을 종사자가 취득하는 효과를 유발
 - 그러나, 사회적으로 돌봄 종사자들의 연평균 임금(13,306파운드)은 일반 근로자 임금(30,906파운드('10)) 대비 약 43.0% 수준으로 낮은 상황임

〈표 9〉 영국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사례

구분	내용
산업 수요	-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 중심의 사회적 돌봄 시장
기관 운영	- 공공부조형의 종사기관 제공방식에 개인 직접고용 지불 제도를 부가
숙련도 제고	- 국가 직업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근무가능
처우 개선	- 종사자들은 기관소속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으로 실질임금이 상승

〔그림 8〕 영국 직접지불종사자 대비 시설종사자 시급 비교



자료: Direct Payments Financial Arrangements(2001), National Key Statistics(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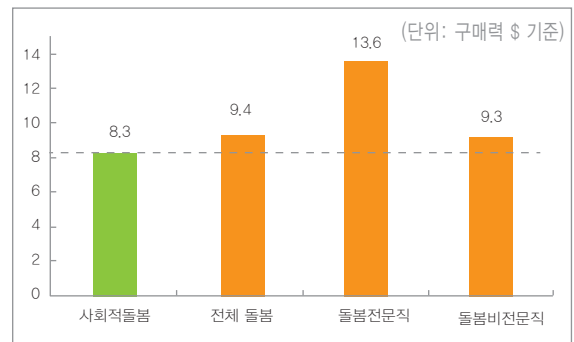
주: 직접고용 종사자임금에는 고용보험금, 각종 수당이 포함

- (프랑스: 시장세분형) 서비스 품질 차등인증을 통해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
 - 아동 보육 중심으로 발전된 개인서비스 시장인 돌봄서비스 영역을 파트타임 중심의 일자리로 확대한 후, 서비스 품질 인증 차등을 통해 돌봄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종사자간 임금차이를 확대
 - 3세 미만 · 노인 · 장애인 대상의 전문직 종사자의 시급('05)은 3세 이상 어린이 돌봄비전문직 종사자나 사회적 돌봄 종사자보다 약 61.0~63.8% 정도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연평균 근로자 임금(36,181\$('05)) 대비 돌봄종사자 임금(10,171\$)은 약 28.1%로 매우 낮은 편

〈표 10〉 프랑스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사례

구분	내용
산업 수요	- 개인서비스 시장으로 정착 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돌봄 확대
기관 운영	- 개인고용, 알선업체, 기관고용자 파견등 3가지 방식을 적용
숙련도 제고	- 단순 인증과 서비스 질 인증 등 기관 품질 관리를 월, 연단위로 실시
처우 개선	- 사회적 돌봄, 돌봄 비전문직 대비 돌봄전문직 임금이 높은 상황

〔그림 9〕 사회적 돌봄 대비 개인서비스 돌봄 시급 비교(2005년)



자료: 윤자영외(2011), 돌봄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1), 한국노동연구원

주: Luxembourg Income Study(LIS) 5, 6차 웨이브를 분석한 윤자영 연구 재인용

■ (이탈리아: 협동조합형)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산업을 담당하면서 종사자 처우를 개선

- 사회적협동조합이 서비스 가격에서 차지하는 이윤을 출자자들에게 배당하기보다는 협동조합 내 근무하는 돌봄 종사자 처우에 투자하고, 지역중심의 서비스 실시로 종사자의 노동숙련도를 강화
- 단체협약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한 후, 자격증 유무로 임금수준을 차등화
- 돌봄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민간 영리기업 대비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평균 근로자 임금(27,122유로('09))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돌봄종사자 임금(11,936유로)은 약 57.2%로 높은 편임

〈표 11〉 이탈리아의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사례

구분	내용
산업 수요	- 아동 및 장애인 외에 일반국민들까지 포함
기관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를 담당 - 공공기금(70%) 및 민간재원(30%) 지원
숙련도 제고	- 자격증 유무에 따른 임금차별화 - 교육훈련 및 인적관계로 질 제고
처우 개선	- 기관이윤을 종사자 처우에 투자 - 단체 고용계약으로 민간기업 대비 동일 또는 높은 수준

〈표 12〉 사회적협동조합 대비 민간기업 돌봄종사자 임금 비교 (단위: 유로)

구분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월 최저 임금			월 평균 임금		
	월임금	기본금	전체	월임금	기본금	전체
레벨 3 (자격증無)	1,157.82	7.75	1165.57	1326.76	20.66	1383.42
레벨 4 (자격증有)	1,245.21	8.33	1253.54	1398.00	20.66	1418.66

자료: COOPERATIVE SOCIALI il contratto di lavoro 2006-2009/ Luglio 2009/ a cura di Giancarlo Valent, PRATICA LAVORO 2012 / Wolters Kluwer Italia (<http://www.ipso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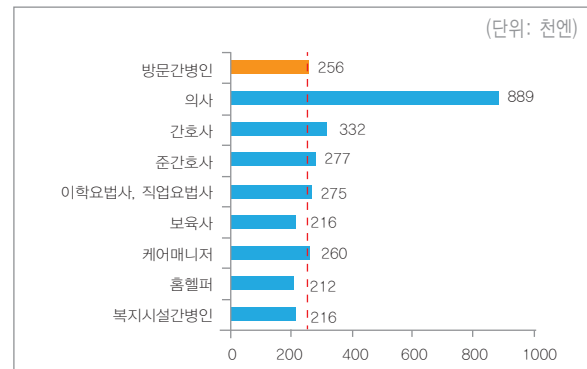
■ (일본: 상품개발형) 개호보험 도입으로 수요와 기관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종사자 처우를 개선

- 개호보험 도입으로 종사기관을 선별 선정하고, 종사자에게는 자격증 부여와 교육의 대폭 강화를 통해 방문간병인의 월 평균 임금('08년)을 개호보험 실시 전 간병인이었던 홈헬퍼·복지시설 간병인보다 높게 유지
- 개호보험 종사자들의 낮은 처우가 사회에 부각되자 2004년 후생노동성이 개호노동자의 법정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통달문을 발표했고, 2008년 개호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부금 제도를 실시
- 연평균 근로자 임금(405만 엔('10)) 대비 방문간병인(308만 엔) 임금은 약 76.1% 수준으로 높은 편

〈표 13〉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사례

구분	내용
산업 수요	- 사회보험으로 개호보험을 도입해 서비스 수요를 유발
기관 운영	- 간병노인복지시설, 간병노인보건시설 등 6개 기관을 종사기관으로 선정
숙련도 제고	- 자격증 및 근무연수 등 숙련도 강화 - 교육단계(500시간)별 서비스 차별화
처우 개선	- 개호보험 전 가정봉사원, 홈헬퍼 대비임금 수준이 상승

[그림 10] 간병관련 직종 간 월평균 임금수준 비교(2008년)



자료: 日本 厚生労働省, 平成20年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4. 정책 과제

- 첫째, 과거 3년간 동결된 돌봄 바우처 서비스 수가의 현실화를 시급히 추진
 -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인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825만원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연평균 임금(2,920만원('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의 약 28%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임²⁾
 -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 종사기관들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낮은 처우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향후 종사자 이탈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음
 - 정부는 열악한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에 서비스 수가를 3% 인상하였지만, 3년간의 동결로 인한 종사자들의 실질소득 상실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미약한 수준임
- 둘째,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정성과 숙련도가 고려된 임금체계를 구축
 - 현 종사자들 중 상당부분이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년간의 근무 연수에 따른 숙련도가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에 선진국의 돌봄 사회서비스 종사자들과 기관들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속년수 및 자격증이 적용된 임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촉진
 -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 규모의 경제로 인해 고용창출력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특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종사자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용의 질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에서도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
- 넷째,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상품을 개발
 - 기존 사회서비스 수요는 소득증가 및 가격상승에 따라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존재
 - 일자리 수요 충족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높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활동지원 종사자 연평균 임금은 보건복지부(2012), 임금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고용부(2012), 201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